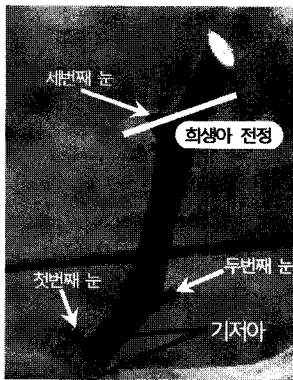


# 고품질 포도재배를 위한 정지전정

박 서 준 과수과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포도는 1990년대 이후 재배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도에 30,537ha로 정점에 이른 후 2009년 17,996ha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재배면적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단순한 품종구성으로 인한 홍수출하로 가격하락 우려가 있고, 생식용 포도의 주요 수출국인 칠레와의 FTA체결 등은 우리나라 포도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포도 생산이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다. 이에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의 밑거름이 되는 품종별 전정기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여 2011년에는 경쟁력 있는 포도를 재배해 보자.

## 알기 쉬운 단초전정



〈그림1〉 포도 캠벨얼리 품종의 눈 위치와 희생아 전정

단초전정은 캠벨얼리, 스투벤, MBA, 진옥, 마스캇오브알렉산드리아 및 대립계(4배체) 품종을 무핵재배할 때 사용하는데, 주로 결과모지 아래쪽 눈에서 발생하는 신초도 착립성이 우수한

품종에 적용되는 전정방법이다. 또한 단초전정은 장초전정과 달리 가지 세력에 따라 가지 길이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세력이 강할 경우 반드시 간별로 주지길이를 확대시켜 수세를 조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단초전정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적지 않은 농가에서 첫 번째 눈 위치를 혼동하여 두 눈 전정을 했는데 실제

로는 세 눈 전정된 경우도 적지 않다. 세 눈 전정하면 결과부위가 한번에 7~10cm 정도 상승되어 신초가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되므로 우리나라처럼 열간 거리가 좁은 과수원에서는 반드시 두 눈 전정을 해야 한다.

일부 농가에서는 결과부위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 눈 전정을 하는데, 한 눈 전정하면 주지 1m에 필요한 신초수가 적게 되어 수량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캠벨얼리 품종의 첫 번째 눈 위치는 기저아가 좌우에 하나씩 있고, 그 바로 위에 첫 번째 눈이므로 〈그림1〉 농가에서는 결과부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첫 번째는 눈 위치를 확인하고 두 눈 전정한다.

포도나무 가지는 마디와 마디 사이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 눈 바로 윗부분을 자르면 봄철 건조로 눈이 고사될 수 있으므로 희생아 전정을 해야 한다. 희생아 전정방법은 두 눈 전정한다면 세 번째 눈을 반으로 자르는 것이지만 〈그림1〉, 작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 세 번째 눈 아래부분을 자르면 된다.

## 하향유인에 의한 장초전정

장초전정은 대립계(4배체) 품종을 유핵재배할 때 이용하는 전정방법으로서 생육기 과번무를 고려해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가지, 즉 월동기간동안 건조로 죽은 가지만 자른다. 이와 같이 가지를 적게 자르면 포도나무에 눈 수가 많아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무기성분과 수분이 눈에 적게 분배되어 앞에서 합성된 탄수화물 소비량도 적게 되므로 C/N을 상승에 의해 꽃떨이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를 적게 잘라 가지가 지나치게 많게 되어 수관이 복잡하면 눈이 크고 잘 등숙된 0.5~1.5m 이내의 짧은 가지 위주로 남기고, 가지가 강하게 성장된 것은 새가지도 강하게 성장

시키므로 원칙적으로 잘라주어야 하지만, 강하게 성장된 가지를 솎음전정 또는 가지의 중간부분에서 절단전정을 하면 남겨진 눈 수가 적게 된다. 그러므로 강하게 성장하는 가지는 수세 조절용으로 포도나무 아래쪽으로 하향유인시키고, 착립이 확인되면 세력을 보아가면서 잘라준다<그림2>. ㉟



〈그림2〉 거봉품종 동계전정 시 하향유인전정(왼쪽)과 개화기 착과 모습(오른쪽)

〈출처 : 농촌진흥청 녹색농업기술 2011년 2월호〉

# 경쟁력 있는 봄배추 재배기술

김 봉 환 원예특작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 봄배추 생산량 부족 예상 재배면적 늘리고, 심는 시기 앞당기되 온도관리 철저하...

지난해 여름철부터 이상 기상으로 배추생산량이 감소하여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고, 가을철 김장배추에 이어 최근 월동배추까지 이상한파로 높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의한 작황부진, 재배면적 감소로 배추생산량이 줄어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

다음 재배시기에 출하되어야 할 배추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앞당겨 출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봄배추도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시설이나 노지에서 생산되는 봄배추 재배면적을 예년보다 늘리고, 심는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앞당겨 심을 경우 저온으로 인한 추대발생은 물론 생육부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와 정밀관리가 필요하다.